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큰일을 치루기 전에”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큰일을 치르
기 전에”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빨강색’과 ‘빨
간색’ 중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고미애, 대구시 북구 복현동)

답 ‘큰일을 치르기 전에’가 맞습니다. 주어야 할 돈을 내주거나(예: 잔
금을 치르다), 어떤 일을 겪어 낸다(예: 큰일을 치르다)는 말의 기본형은 ‘치
르다’입니다. ‘치르다’는 어간 ‘치르-’에 어미 ‘-어, -었-’이 붙게 되면, 어간
의 ‘으’가 탈락하고 ‘치러, 치렀-’으로 활용합니다. ‘쓰다’에 ‘-어, -었-’이 결
합하면 ‘써, 썼-’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홍역을 치르다, 시험
을 치르다, 잔치를 치르다, 큰일을 치르다’ 따위에 쓰이는 동사의 기본형이
‘치루다’인 줄로 착각하고 그 활용형을 ‘치루기, 치루고, 치뤄, 치뤘다’로 쓰
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입니다. ‘치르다’는 (큰
일을) 치르기 전에, 치르고 나니, 치러 냈다, 치렀다처럼 써야 맞춤법에 맞
습니다.

‘빨강색’과 ‘빨간색’ 중 맞는 표현은 ‘빨간색’입니다. ‘빨강’은 그 자체로
‘빨간 빛깔이나 물감’을 뜻하므로 ‘빨강’ 뒤에 ‘색’을 붙이는 것은 굳더더기
가 됩니다. 이런 부류의 쌍으로는 ‘노랑, 노란색’, ‘파랑, 파란색’, ‘하양, 하
얀색’ 등을 더 들 수 있습니다. ‘발강, 발간색’, ‘별경, 별건색’, ‘빨경, 빨건
색’, ‘누렁, 누런색’, ‘퍼렁, 퍼런색’, ‘허영, 허연색’ 등과 같이 음상(音相)을

달리해 만들어진 말들이 이런 예로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빛깔이나 검은 물감을 뜻하는 말로는 *가망, *거멍, *까망, *꺼멍'이 아닌 '감장(가만색, 감은색), 검정(거먼색, 검은색), 감장(까만색, *감은색), 검정(꺼먼색, *검은색)'을 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여기서 * 표시는 비표준어임을 나타냄.)

[물음] “여기서 끝낼 거라면 수째 시작도 하지 않았어.”라는 드라마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째’라는 표기가 맞는 것입니까?
(권명선,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답] 위 문맥에서는 ‘수째, 순제’가 아닌 ‘숫제’로 표기해야 맞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3장 제1절 된소리 중 제5항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예와 같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단어 안’은 하나의 형태소(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내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어깨, 소쩍새, 아끼다

예시어 중 ‘소쩍-새, 아끼-다’ 따위는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된소리 문제는 그 중 한 형태소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된소리로 적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란, 발음에서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조건(환경)이 아님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본디 예사소리인 것이 환경에 따른 변이음(變異音)으로서 된소리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개 형태소 내부의 두 모음 사이 환경에서(곧 모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칙에 따라 ‘소쩍’은 그 새의 울음소리를 시늉(음

성 상징)한 의성어(擬聲語)이므로, ‘슛/적’처럼 갈라질 수 없고, ‘어깨’는 ‘엇개, 억개’처럼 갈라 적지 않습니다. ‘피꼬리, 메뚜기, 부뚜막, 가꾸다, 가꾸이, 부쩍’ 등은 다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슛제’의 경우에서 ‘슛-’은 ‘슛-되다(순진하고 어수룩하다), ‘슛-접다(순박하고 진실하다), 슛-지다(순박하고 인정이 두텁다)’ 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슛제’는 ‘1. 순박하고 진실하게’라는 뜻에서 의미가 전이되어 ‘2. 처음부터 차라리’ 또는 ‘아예 전적으로’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뜻 1의 예: 그도 이제는 슛제 착실한 생활을 한다. ※뜻 2의 예: 하다가 말 것이라면 슛제 안 하는 것이 낫다. / 아이들은 대부분 짚신을 신거나 아니면 슛제 맨발이었다. / 그는 슛제 모르는 척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요컨대 ‘슛제’는 ‘소쩍’이나 ‘어깨’와 같은 한 개 형태소라고 볼 수 없으며, ‘슛접-이 → 슛저이 → 슛제’처럼 분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제’로 적지 않고 ‘슛제’로 적는 것입니다.

물음 “이번 경기는 실패를 가름/갈음하기가 어려웠다.”라는 표현에서 두 단어 모두 같은 발음으로 소리 나는데 ‘가름’ 과 ‘갈음’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정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답 “이번 경기는 실패를 가름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발음은 비슷하면서 뜻이 다른 단어를 구별하여 적는 경우인데, ‘가름’(조깅, 분할, 분별)은 동사 ‘가르다’의 어간 ‘가르-’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은 형태이고, ‘갈음’(바꿈, 대체, 교체)은 동사 ‘갈다’의 어간 ‘갈-’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은 형태입니다. 아래에 ‘가르다’와 ‘갈다’가 쓰인 예를 통해 의미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가르다:

- (1) 가. 수박을 다섯 조각으로 갈라 나누어 먹었다.
- 나. 빗으로 가르마를 양쪽으로 갈랐다.
- 다. 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바람을 가르고 날아갔다.
- 르. 생선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었다.
- (2) 가. 9회에 승부를 가르는 홈런이 나왔다.
- 나. 잘잘못을 가리자.
- 다. 흑백을 가른다.

갈다:

- (1) 다 쓴 전등을 빼고 새것으로 갈아 끼웠다.
- (2) 임원진을 새로운 인물로 모두 갈았다.

요컨대 “9회말에 승부를 가름하는 홈런이 나왔다.”, “이 일에 대해서는 가름이 잘되지 않는다.”와 같이 사물이나 상황을 구분하거나 분별하는 일에는 ‘가름’을, “연하장으로 세배를 갈음한다.”, “가족 인사로 약혼식을 갈음한다.”와 같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의미에는 ‘갈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물음]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닭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매번 그 발음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닭’, ‘닭이’, ‘닭 앞’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희선,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답] ‘닭’, ‘닭이’, ‘닭 앞’은 각각 [닥], [달기], [[닥 압→ 다갑]으로 발음합니다.

겹받침은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리’은 그 위치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표준 발음법’ 제11항을 살펴보면, 겹받침 ‘ㄹ’의 발음은 단어의 끝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닭’이나 ‘흙’은 [닥], [흑]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 제14항에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닭’이라는 명사에 조사 ‘이’가 결합하면 ‘닭’은 [닥]으로 발음하지 않고, 겹받침 중 ‘ㄱ’을 뒤 음절로 옮겨 [달기]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흙에’의 발음도 [흑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닭 앞’의 발음은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따라 발음해야 합니다. 그 규정을 살펴보면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겹받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하게 됩니다. 즉 ‘닭’이라는 명사에 ‘앞’이라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된 경우, ‘닭 앞’은 [닥 압]으로 또박또박 끊어서 발음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속도로 발음한다면 받침 ‘ㄱ’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다갑]으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흙 위’를 발음할 때에도 ‘흙’이라는 명사에 실질 형태소 ‘위’가 결합되었으므로 [(흑 위)→ 흐귀]로 발음해야 합니다.

물음 주변에서 보면 ‘의’를 발음하는 것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시작하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에]로 발음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김성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답] 문의하신 ‘의’의 발음에 관해서는 ‘표준 발음법’ 제5항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니’는 이중 모음으로서 그 발음도 이중 모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꺠]로 발음함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신 ‘우리의’는 [우리의](원칙)와 [우리에](허용)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의’는 [모두의]가 원칙이나 [모두에]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주의(主義)’는 [주의]로 발음함이 원칙이나 [주이]도 가능하고, 협의 [허브/허비]나 민주주의[민주주의/민주주이]도 두 가지의 발음이 모두 가능합니다.

한편, ‘민주주의의 의의(意義)’라는 표현의 발음은 현행 규정상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 가능한 발음이 있습니다.(아래에서 # 기호는 쉼(休止)의 표시)

- | | |
|----------------|----------------|
| 1. [민주주의의#의의], | 2. [민주주의의#의이], |
| 3. [민주주이의#의의], | 4. [민주주이의#의이], |
| 5. [민주주의에#의의], | 6. [민주주의에#의이], |
| 7. [민주주이에#의의], | 8. [민주주이에#의이] |

그런데 [의] 발음이 연달아 나타나면 발음하기 힘들어지므로 1, 2, 3, 5, 7보다 4, 6, 8이 현실적으로 언중들에게 더 선호되는 발음입니다.

‘니’의 발음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표기 상에서 자음을 앞세우고 있는 ‘니’는 [ㅣ]로 발음하고 [니]나 [니]로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들의 ‘니’는 표기상으로는 ‘니’이지만 발음은 [ㅣ]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 | | |
|------------|------------|--------|
| 흰무리[흰무리] | 희미하다[히미하다] | 유희[유히] |
| 하늬바람[하니바람] | 닐리리[닐리리] | 무늬[무니] |